

A Development of Plastic Containers with Decorations  
for Lotte EATMINT

## 껌을 위한 금속용 가식 플라스틱용기의 개발

小垣 美津子/藤原 普夫 / (주)롯데 롯데이노베이션본부 패키지 · 디자인기획부 패키지기획과

### I. 서론

최근 민트 과자(껌, 사탕 등을 포함)시장에서 고가격대 상품이 신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청량감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태블릿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 상품은 품질에 대한 고집뿐만 아니라 고급감 등 외관의 좋음도 중시되고 있어서 금속캔 용기나 박형 플라스틱용기 등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배경에서 일본의 롯데는 새로운 민트계 츄잉캔디 'EATMINT'의 신규 개발을 추진해왔다. 'EATMINT'는 씹는 순간 입안에서 청량감이 터지고, 상쾌감이 지속되는 제품으로, 껌으로도 태블릿에서도 없었던 새로운 과자이다. 신 브랜드로써 패키지에도 신규성을 만들고, 타사의 기존 상품과 차별화한 신상품으로 소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했다.

당초에는 미장성이 높고 고급감이 있는 금속캔 용기가 후보에 올랐었다. 그러나 금속캔 용기는 내용물 충전 후의 검토 시 금속검지기나 X선 검사를 할 때에 제한이 있고, 안전성이라는 면에서의 과제도 있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커터 등에 이용되는 기술을 식품용 용기에 처음으로 적용, 외관의 좋음과 안전성을 양립하는 기시감 없는 새로운 플라스틱용기를 개발하게 됐다.

### II.-dot판인쇄의 성형가공 · 표면가식기술 '플라스틱가식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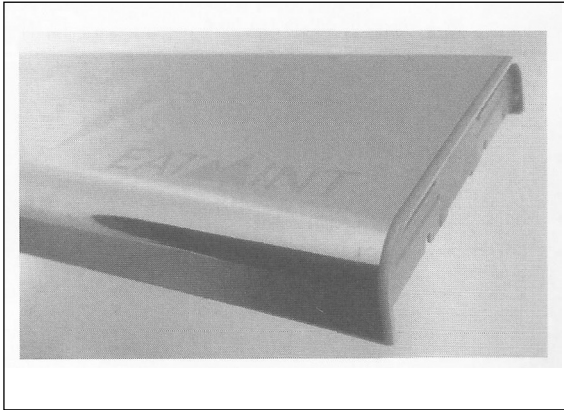
이번에 발매한 'EATMINT'의 플라스틱용기에는 dot판인쇄주식회사(이하 dot판인쇄)가 보유한 성형가공 · 표면가식기술의 하나인 '플라스틱가식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

[사진 1] 금속풍 미장성이 높은 용기로 발매되고 있는 'EATMINT'의 패키지



술은 기존 휴대전화의 부자재나 자동차의 내장부품 등에 이용됐었다. 금형에 가식필름을 삽입한 상태로 수지를 충전해 용기를 성형하는 '필름 인서트 성형'의 기술을 과자 패키지에 전용해 용기 전면에 울룩불룩한 표면이나 광택감이 있는 미장성이 높은 인쇄표현이 가능해졌다([사진 1]).

[사진 2] 용기 엣지부까지 필름으로 덮는 것으로 금속풍 표현을 한계까지 추구



### III. 금속풍 메탈릭 재현의 한계까지 추구한 용기 개발

금속풍 메탈릭 재현을 한계까지 추구하기 위해 용기 표면의 100% 거울면 광택화를 실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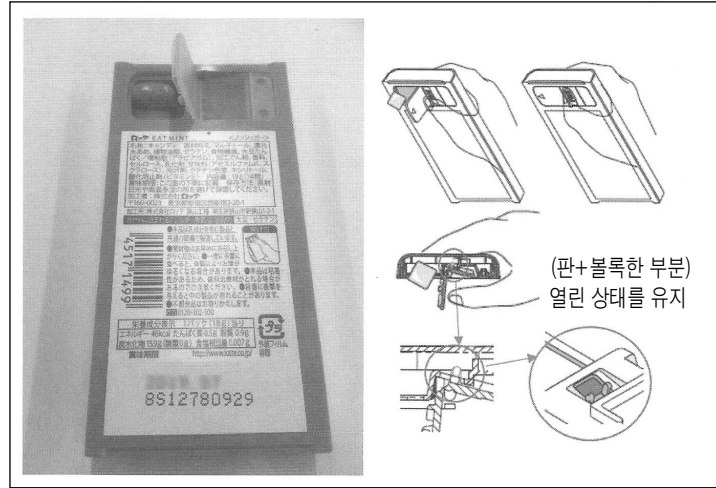
기존의 일반적 필름 인서트 성형에서는 필름을 용기 엣지부까지 덮는 것이 어려워 외관

상 플라스틱부분이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EATMINT'에서는 금형 안에서 필름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성형 시에 어긋남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용기 전면을 증착필름으로 씌우는 것이 가능해졌고, 금속을 넘어서는 반짝임을 구현한 플라스틱용기가 실현됐다([사진 2]).

### IV. 'EATMINT'의 모티브인 빙산을 표현한 세밀한 능선 형상

일반적 필름 인서트 성형에서는 표면에 울퉁불퉁한 부분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 평면형상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EATMINT'는 용기 표면에 세밀하고 반짝이는 능선형상을 표현했다.

[사진 3] 버튼 푸시형 개봉 구조



브랜드 모티브가 되고 있는 빙산을 모방한 형상으로, 브랜드 이미지의 소구를 강화함과 동시에 빛의 반사에 의해 반짝반짝 빛나고 스타일리시한 패키지로 완성하는 것에 성공했다.

## V. 감합구조 및 개봉구조

용기 표면의 능선 표현을 저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감합구조는 용기의 4개 모서리로 완결시켰다. 뒤측에 핀 등이 없어서 표면 형상에 대한 영향이 적고, 낙하시켜도 벗겨지지 않는 일정 강도를 유지시킨 구조로 했다.

또한 개봉구조도 신규성을 가지기 위해 민트 태블릿 과자의 용기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슬라이드식이나 측면을 개봉하는 방식이 아니라 버튼 푸시(button push)형 개봉구조로 했다. 한번 버튼을 누르면 개구부가 고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누를 필요 없이 내용물을 꺼낼 수 있다([사진 3]).

## VI. 결론

신규성이 강한 민트 태블릿 과자로서 발매된 'EATMINT'. 내용물의 신규성에 적합한 의장성이 높은 패키지를 적용해 기존 동사가 가지고 있던 금속 용기들이 민트 태블릿 과자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과제가 있었다. 내용물의 품질 보증면과 타사 상품과의 차별화를 동시에 해결하고, 완전히 새로운 민트 태블릿 과자 브랜드로서 출시하는 것에 성공했다.

또한 이번엔 '필름 인서트 성형' 기술을 과자 패키지에 적용하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과자 용기 개발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가공기술·표면가식기술을 응용해 지금까지 없던 기능·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패키지가 가진 가능성을 확대하고, 상품 브랜드 전략에 대한 활용·신 시장의 창출로 이어가고자 한다. 